

주요 동향(2) : ICT

1 에이전트 운영체제의 부상: 오픈클로가 촉발한 중국의 에이전트 전환

→ 오픈클로 등장에 따른 에이전트 경쟁 패러다임 전환

- (경쟁 패러다임 전환) 오픈클로 부상, AI 경쟁의 축이 생성에서 실행으로 이동
 - 오픈클로는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실행 환경으로,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‘생성’에서 ‘실행’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
 - 특히,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 구조를 채택해 GPT, Claude, DeepSeek 등 어떤 LLM이든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뛰어난 범용성 보유
 - 이러한 범용성을 바탕으로 출시 4개월 만에 GitHub 스타 24만 8천 개를 돌파,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수십 년간 누적해 온 기록을 단기간에 추월
 - NVIDIA CEO 젠슨 황은 GTC 2026에서 오픈클로를 “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릴리스”로 평가하는 등 에이전트 경쟁의 초점이 모델 성능에서 실행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
 -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픈클로는 특히 중국에서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며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·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를 촉발

→ (현황 및 배경) 인프라·기술·자국 빅테크가 결합된 중국 오픈클로 확산 구조

- (중국 사용 현황) 중국, 세계 최대 오픈클로 도입국으로 부상하며 사회 현상으로 확산
 - 중국이 미국을 넘어 오픈클로 최대 활용 국가로 부상한 가운데, 사용자들이 에이전트에 연동하여 사용하는 기반 AI 모델 또한 자국산이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음
 - 오픈클로의 로고에서 비롯된 “랍스터 키우기(양롱쓰아-养龙虾)” 밈이 전국적으로 확산, 전국 순회 무료 설치 행사가 열리는 등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 현상으로 확대
 - 이에, 오픈클로 설치 대행 유료 서비스를 비롯하여 보안 우려에 따른 삭제 대행 서비스까지 파생 산업으로 등장하는 등 중국 AI 생태계 전반의 성장세와 맞물려 가속화
 - 오픈클로의 확산에 힘입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OPC(One Person Company) 창업 모델이 부상하며, 중국 정부는 이를 스마트 경제의 새로운 형태로 규정

- (배경) 슈퍼앱 인프라·LLM 비종속 구조·자국 빅테크 선제 대응의 삼박자가 확산 배경으로 작용
- ① (인프라) 슈퍼앱 생태계와 AI+ 정책 기조 결합이 최적의 오픈클로 수요 환경 형성
 - 중국의 위챗, 알리페이 등의 슈퍼앱 생태계는 여러 앱을 넘나들며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활동에 최적화된 인프라 환경으로, 중국 특유의 높은 신기술 수용 속도와 결합해 확산 속도 가속화
 - 중국 정부는 '25년 AI+ 전면 융합에 이어, '26년 업무보고에서 '스마트 경제' 신모델을 내세우며 에이전트 기술을 국가 경제 재편의 핵심 기반으로 공식화
 - 15차 5개년 계획(2026~2030) 초안에도 AI+ 및 에이전트 육성 목표가 포함되면서, 오픈클로 확산이 중앙정부 전략 기조에서 출발하는 하향식 정책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시사
- ② (기술) 오픈클로의 LLM 비종속 구조가 중국 기업의 빠른 시장 진입 경로로 기능
 - 특정 AI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클로의 구조는 Qwen·Doubao·GLM 등 중국 국산 LLM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어, 미국 폐쇄형 플랫폼 의존 없이 독자적인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 가능
 - ClawHub에 기구축된 1만여 개의 자동화 기능 모듈(스킬) 생태계 활용이 독자 표준 구축보다 빠른 시장 진입 경로로 작용해, 중국 기업들의 에이전트 제품 출시 속도를 구조적으로 뒷받침
 - 중국 AI 모델 시장이 2022~2027년 연평균 131%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, '25년부터 유료 상용 모델 수요가 오픈소스 기반 에이전트 솔루션으로 빠르게 전환되며 오픈클로 부상을 가속화
- ③ (플랫폼) 중국 빅테크의 선제 대응이 오픈클로 도입을 가속화
 - 오픈클로가 단일 명령으로 기존 앱을 직접 제어·우회함에 따라, 트래픽·데이터·수익 이탈의 구조적 위협을 느낀 중국 빅테크들의 선제 대응을 촉발
 - 자국 빅테크들의 자체 에이전트 실행 환경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, 오픈클로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중국 내 빅테크 기업들은 생태계 선점을 위해 오픈클로 호환 제품을 우선 출시
 - 중국 빅테크의 적극적 지원과 오프라인 설치 행사 등으로 오픈클로 기반의 에이전트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, 중국 내 경쟁사 간 공동 확산이라는 이례적 구도 형성



➔ 중국 주요 기업의 오픈클로 도입 유형과 전략

● 기업별 보유 플랫폼 자산에 따라 에이전트 도입 전략 분화

- '26년 3월 기준 중국 주요 기업 13개 사 이상이 오픈클로 기반 제품을 출시하며, 빅테크를 넘어 스타트업·통신사까지 에이전트 시장 진입이 본격화
- 오픈클로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 에이전트 자체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고, 실제 경쟁력은 각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·데이터·인프라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서 갈리기 시작
- 자체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은 에이전트를 기존 서비스 안에 내재화하는 서비스 결합형*으로, 기술·인프라 기업은 에이전트 구동 환경을 빌려주는 인프라 제공형**으로 진입 전략이 양분
- (서비스 결합형) 메신저, 검색, 협업 도구, 디바이스 등 자체 서비스·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기존 서비스를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형태로 확장하며, 보유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유형이 분화
- (인프라 제공형) 기술·인프라 제공이 본업인 기업이 오픈클로 실행 환경을 자사 클라우드, SaaS 등 기존 공급 체계에 결합해 제공하는 형태로, 인프라 사용료와 구독료가 핵심 수익원
- 서비스 결합형과 인프라 제공형 구분은 배타적이지 않으며,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병행 전략이 일반적이나, 각 기업의 핵심 전략 방향에 따라 우선 축을 기준으로 분류

가. 서비스 결합형 - 자체 서비스 자산을 에이전트로 확장하는 기업군

① (메신저) 텐센트, 메신저 기반의 AI 에이전트 서비스

● 텐센트, 자사 메신저 서비스 위에 에이전트를 전면 배치

- ClawBot은 위챗 연락처 창에 대화 상대로 등록되며, 사용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채팅창에서 자연어로 명령을 보내고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이용 가능
- 새로운 화면이나 조작법을 따로 익힐 필요 없이 메신저를 쓰듯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이어서,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초기 적응 부담을 크게 낮추는 이점 존재
- 단일 에이전트 제품이 아니라, 소비자용·기업용 제품을 일괄 출시하여, 에이전트 시대에도 사용자가 텐센트 생태계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구조를 형성
- 마화팅 CEO는 로컬 에이전트, 클라우드 에이전트, 보안 환경 등 후속 로드맵을 직접 공개하며, 에이전트를 개별 기능이 아닌 생태계 전반을 관통하는 층으로 확장할 방침을 제시

- 소비자·기업 중 한 축이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경쟁자가 이를 발판으로 생태계 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점에서, 위챗과 QQ에 기반한 플랫폼 울타리를 에이전트 시대에도 유지하겠다는 판단

② (검색·지식 자산) 바이두, 설치가 필요 없는 웹 브라우저 기반의 AI 에이전트 서비스

● 오랜 기간 축적한 지식 자산을 에이전트의 우선 정보원으로 전환

- 바이두는 중국 1위 검색 엔진과 방대한 지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이를 오픈클로용 플러그인으로 재구성해 에이전트가 정보를 찾을 때 바이두를 우선 참조하도록 설계
- 사용자가 검색창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에이전트가 작업 도중 알아서 바이두에 정보를 요청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, 검색 트래픽이 줄어도 에이전트를 통해 바이두의 지식 자산이 계속 쓰이는 구조가 성립
- 바이두 수석 부사장 선더우는 “어떤 플랫폼도 더 이상 담장으로 둘러싼 정원을 원하지 않는다”며, 개방형 에이전트 생태계 안에서 자사 지식 자산의 쓰임새를 극대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

● 클라우드부터 음성 기기까지, 에이전트 접점을 채널별로 확장

- 바이두는 지식 플러그인을 중심에 두되,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채널은 클라우드, 스마트폰, PC, 음성 기기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그중 DuClaw(클라우드)와 Xiaodu 스피커(음성 기기)가 대표적
- (DuClaw) 복잡한 프로그램 설치나 세팅 과정 없이 인터넷 창만 열면 즉시 AI 비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, 기존 클라우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AI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설계
- (Xiaodu 스피커) 스마트 스피커에 오픈클로를 직접 탑재해, 음성명령만으로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커피 주문처럼 여러 앱을 거쳐야 하는 작업도 말 한마디로 처리하는 시나리오를 시연

③ (업무 플랫폼) 알리바바, 업무 협업 플랫폼(DingTalk) 기반의 AI 에이전트 서비스

● AI가 화면을 거치지 않고 기능을 직접 호출하는 업무 플랫폼으로 재설계

- 기존 에이전트는 화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(UI)를 따라 기능을 실행하는 구조여서 처리 속도가 느리고, 화면 구성이나 버튼 위치가 바뀌면 오작동이 발생하기 쉬운 한계가 존재
- 알리바바는 DingTalk의 모든 기능을 AI가 명령어 한 줄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재설계하여, 에이전트가 화면을 거칠 필요 없이 기능을 곧바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전환



- 파일 처리 방식도 바꾸어, 기존에는 문서 한 글자를 고쳐도 전체를 다시 저장해야 했으나 AI 전용 파일 시스템을 도입해 고칠 부분만 골라 수정하는 구조로 전환해 토큰 비용을 크게 절감
- 사용할수록 매출이 늘고 전환 비용도 높아지는 구조 형성
 - Wukong은 월정액 대신 에이전트의 실제 작업량에 기반한 종량제 과금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, 기업의 에이전트 사용량이 늘수록 알리바바의 매출도 연동되는 구조가 형성될 전망
 - 또한 쇼핑, 결제, 클라우드 등 알리바바 핵심 기능을 Wukong 안에 기능 모듈로 단계적으로 추가하여, 기업이 Wukong을 사용할수록 알리바바의 다른 서비스까지 함께 이용하게 되는 구조를 확립할 방침
 - DingTalk 미사용 기업들까지 포섭하기 위해 타사 서비스와의 연동 벽을 허물고, 전 세계 모든 기업 업무 환경에 알리바바 에이전트가 스며들게 만드는 전략을 병행
- ④ (디바이스 OS) 샤오미·화웨이, 자체 디바이스 생태계 확장
 - (샤오미) 스마트폰과 가전을 직접 연결하는 통합형 에이전트 ‘MiClaw’
 - MiClaw는 일반 앱처럼 제한된 화면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, 일정 확인, 알람 제어, 앱 실행, 가전 조작 기능 등의 권한을 보유해 스마트폰과 가전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에이전트
 - 예컨대 ‘10시 중요 회의’ 일정을 인식하면 스마트폰 자동 음소거, 로봇청소기 정지, 긴급 전화만 진동 알람을 수행하고, 회의 종료 후에는 기기 상태 복원과 놓친 연락 요약까지 자동 처리
 - 외부 서비스 연동 도구도 함께 제공하지만, 이미 널리 보급된 샤오미 스마트폰과 IoT 기기를 에이전트가 한꺼번에 제어하게 해 기존 하드웨어를 더 자주, 더 오래 쓰게 만드는 방향에 집중
 - (화웨이) 개발 플랫폼 Xiaoyi Claw를 통해 자사 OS 생태계 확장
 - 샤오미가 이미 판매된 기기를 에이전트로 바로 연결해 하드웨어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라면, 화웨이는 외부 개발자가 새 서비스를 계속 엮게 해 HarmonyOS 생태계 자체를 키우는 방식
 - 화웨이는 자체 개방형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에서 오픈클로 연동 기능을 제공해, 외부 개발자가 HarmonyOS 기기에서 작동하는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·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

- 이는 화웨이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, 외부 기업과 개발자가 HarmonyOS용 에이전트를 계속 추가하게 만들어 운영체제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빠르게 늘리기 위한 목적

나. 인프라 제공형 - 기존 공급 체계에 에이전트를 결합해 유통하는 기업군

① (클라우드 SaaS) 바이트댄스, IT 인프라 없이 즉시 도입 가능한 에이전트 환경에 집중

- 기업이 바로 도입해 쓸 수 있는 에이전트 실행 환경 제공
 - 바이트댄스는 자사의 화산엔진(Volcano Engine) 클라우드 위에 SaaS형 에이전트 실행 환경을 구축해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초점
 - 자사 서비스 안에 에이전트를 직접 결합하여 기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들과 달리, 바이트댄스는 기업 고객이 에이전트를 바로 도입해 쓸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
 - 즉 에이전트를 자사 서비스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, 기업이 곧바로 써볼 수 있는 SaaS형 상품으로 제공해 수익화하는 방식
- ArkClaw, 협업 도구 안에 에이전트를 바로 넣는 SaaS형 서비스
 - 에이전트가 별도 화면에서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, 기업이 이미 쓰고 있는 협업 도구 안에서 문서 작성, 일정 조율, 업무 자동화 등을 이어서 수행하는 방식
 - 향후 자사 협업 도구(라크)에 국한하지 않고 경쟁사의 업무 플랫폼(WeCom, DingTalk)으로 서비스 연동을 개방, 어떤 업무 환경을 쓰는 기업이든 자사의 에이전트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
- 보안 우려를 관리형 SaaS 수요로 전환
 - 바이트댄스는 오픈클로의 보안 위험을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먼저 제시한 뒤, 통합 인증과 접근 통제를 갖춘 기업용 서비스 ByteClaw를 함께 내놓으며 보안 대응 수단까지 자사 서비스로 연결
 - 사내에서도 오픈클로 직접 배포보다 ByteClaw 등 규정 준수형 도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, 오픈소스 에이전트의 보안 불안을 관리형 SaaS 수요로 전환하는 흐름
 - 오픈소스 에이전트의 보안 위험은 바이트댄스에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, 기업이 직접 설치형보다 관리형 SaaS를 더 선호하게 만들며 자사 서비스 수요를 키우는 사업 조건으로 작용



② (클라우드 인프라) 통신 3사, '가상 PC 대여'와 '오프라인 대면 지원'을 결합한 대중화 전략

- 클라우드 PC와 오프라인 영업망을 결합한 공통 진입 방식
 - 중국 통신 3사는 단순 회선 제공을 넘어 기구축된 막대한 '데이터센터'와 '전국 영업망'을 무기로 에이전트 시장에 진입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려는 전략
 - 차이나텔레콤, 차이나유니콤, 차이나모바일 3사는 사용자가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필요 없이, 오픈클로가 완벽히 세팅된 고성능 클라우드 PC를 원격으로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에이전트 시장 진입
 - 특히, 전국에 촘촘히 구축된 오프라인 영업망을 활용해 직원 1:1 대면으로 클라우드 접속 및 초기 설정을 직접 돕는 서비스를 제공, 비전문가 및 소상공인 계층의 도입 장벽을 대폭 낮춤
- 사용자 PC와 독립된 클라우드 전용 실행 환경을 통해 에이전트 보안 리스크 최소화
 - 오픈소스 에이전트를 개인 PC나 사내망에서 직접 실행할 경우, 악성 코드 감염이나 데이터 유출 등 치명적 보안 위협에 노출 가능
 - 통신 3사는 에이전트가 오직 통신사의 클라우드 서버 내부에서만 작동하도록 물리적으로 격리, 만약 에이전트가 오작동하더라도 고객의 실제 PC와 내부망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구조를 제공
 - 이에 더해 대규모 무료 토큰 지원과 주요 대형 언어 모델 사전 연동을 제공하여, 초기 세팅의 번거로움 없이 로그인만으로 즉시 안전한 AI 비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
- 차이나텔레콤, 3사 중 유일하게 에이전트 보안을 독립 사업으로 확장
 - 3사 중 차이나텔레콤은 단순 가상 PC 대여를 넘어, 에이전트 전용 보안 솔루션인 '텐이지안'을 별도 제품으로 출시하며 보안 관리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
 - 악의적 명령 주입, 플러그인 위변조, 민감 데이터 유출, 위험 행위 실행 등 에이전트 고유 리스크에 대응해, 사전 점검부터 실시간 차단, 사후 추적까지 전 과정의 방어 체계를 제공
 - 정부·공공기관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고객에게는 외부 인터넷과 차단된 자체 서버 일체를 결합한 '폐쇄형 에이전트 환경'을 제공하며 B2B 특화 경쟁력을 선점하는 흐름

③ (로컬 구동) 센스타임·즈푸AI, 로컬 구동형 에이전트로 클라우드 SaaS의 대안 제시

● 로컬 구동 방식으로 클라우드 SaaS와 다른 선택지 제시

- 대부분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SaaS 형태로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가운데, 일부 기업은 데이터가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기기 내부에서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로컬 구동 방식에 집중
- 일례로 센스타임은 하드웨어 일체형 기기(AI Box)로, 즈푸AI는 PC 설치형 소프트웨어 (AutoClaw)로 로컬 구동을 구현하는 등 같은 방향을 지향하되 구현 방식은 상이
- 두 제품의 공통 강점은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클라우드 구독료도 들지 않는다는 점으로,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용자와 반복 과금이 부담되는 소규모 조직에 다른 선택지를 제공

● (센스타임) 기기 판매 중심의 로컬형 업무 단말 'AI Box'

- AI Box는 오픈클로 실행 환경과 센스타임의 오피스 AI 기능(Raccoon Skills), 로컬 추론 기능을 한 기기에 통합한 제품으로, 별도 서버 구축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로컬형 AI 업무 단말
- 기기를 한 번 구매하면 이후 클라우드 API 사용료가 들지 않는 일회성 결제 제품으로,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는 SaaS 모델에 부담을 느끼는 1인 기업이나 10인 이하 소규모 조직을 겨냥
- 한편, 자사 오피스 AI의 핵심 기능을 오픈클로용 플러그인으로도 제공해, 기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일반 오픈클로 사용자까지 고객 범위를 넓히는 구조

● (즈푸AI) 설치 편의성과 실행 성능을 높인 PC 소프트웨어 'AutoClaw'

- AutoClaw는 macOS·Windows에서 일반 앱처럼 한 번 클릭으로 설치하는 오픈클로 통합 소프트웨어로, 서버 구성, 모델 연결, 기능 설정까지 자동화해 설치 부담을 크게 낮춘 제품
- 콘텐츠 제작·코딩·마케팅·재무 분석 등 자주 쓰이는 50개 이상의 기능이 미리 탑재돼 있고, 페이수 등 기업 메신저와도 바로 연동돼 설치 직후부터 실제 업무에 투입 가능한 구조
- 센스타임이 하드웨어 일체형과 일회성 구매라는 비용 구조로 차별화했다면, 즈푸AI는 자체 모델 Pony-Alpha-2를 탑재해 도구 호출 안정성과 연속 작업 성능을 높이는 방식으로 차별화
- 여기에 브라우저 자동 조작 기능(AutoGLM)도 내장해 별도 브라우저를 띄우지 않고 여러 웹사이트를 오가며 작업할 수 있어, 단순 명령 실행을 넘어 웹 기반 업무 자동화까지 지원



➔ 중국 에이전트 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구조적 과제

● (보안) 자율 에이전트 미반영 설계로 인한 보안 리스크 확대

- 오픈클로는 높은 시스템 권한을 요구하며 파일 읽기·쓰기·삭제 및 외부 통신이 가능한 구조로, 기존 기업 보안 모델이 상정하지 않은 자율 실행 주체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상황을 초래
- 공식 마켓(ClawHub) 스킬의 20%가 악성으로 확인된 가운데, '26년 1월 'ClawHavoc'을 통한 악성 스킬 대량 배포로 무단 명령 실행 및 데이터 탈취 등 실제 공급망 공격이 발생
- 중국 국가컴퓨터네트워크 긴급대응센터(CNCERT) 집계 기준, 인터넷에 무방비 노출된 오픈클로 인스턴스가 22만 개 이상으로 확인되어 무분별한 설치·배포의 보안 위험성을 단적으로 노출
- 텐센트는 ADP Claw에 5중 보안 레이어를 별도 구축하고 알리바바는 Wukong에 4계층 보안 아키텍처를 기본 내장하는 등 대응 중이나, 오픈소스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보안 취약성은 지속

● (비용) 운용 비용 과다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확산

- 중국 정보통신연구원(CAICT) 집계 기준 AI 에이전트 실사용자의 72% 이상이 초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 부담 가중
- 오픈클로 자체는 무료이나, 연동된 AI 모델이 일할 때마다 과금, '무료'라는 기대와 달리 개인(수십 위안/일)과 기업(일 수백 위안/일) 모두 예상치 못한 막대한 운영비 부담에 직면
- 즈푸AI의 토큰 단가 20% 인상 등 AI 모델 제공사의 이용료 인상 추세가 겹쳐, 높은 시장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'수익 확보 전 과도한 운영 비용'이 업계 공동 과제로 부상

● (모델 성능) 자체 LLM 모델 성능의 한계에 따른 속도 및 신뢰성 저하

- 서구권 AI 배제 및 중국 모델 탑재 기조가 굳어지며,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클로의 범용성이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 '자국 LLM 전용 프레임워크'로 변질되어 운용되는 양상
- 그러나 중국 LLM 기반 에이전트의 경우 복잡한 투자 분석 등 고난도 작업에서 응답 중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, 바이두 시연에서 단순 커피 주문에 약 2분이 소요되는 등 속도의 한계 노출
- 이는 에이전트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자국 LLM의 복합 추론 및 도구 호출 능력이 미국 선도 모델 대비 여전히 격차가 있는 데서 기인, 실행 환경의 고도화만으로는 해소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

- 또한 CAICT 분석 결과, 중국의 언어 모델의 환각률이 10% 이상, 멀티모달 모델은 최대 30%에 달하는 정확도 문제가 부상하며 실무 신뢰성 확보의 핵심 장애 요인으로 지목
- (정부 규제와 시장 구조) 중앙정부 주도의 오픈클로 표준 체계 수립 및 시장 질서 확립
 - 정부·국유기업·은행 등 공공 부문의 오픈클로 설치를 제한한 데 이어, 전 사회적 보안 가이드라인 및 신뢰성 표준을 제정하며 에이전트 통제망을 민간으로 점진 확대
 - 기업들은 이중 압박 속에서 오픈클로 호환 제품으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면서도, 이를 자사 보안 패키지로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 규제 요건과 시장 확산 압력을 동시에 충족하는 전략을 구사

출처 : CNBC 외(2026.3.)

<https://www.cnbc.com/2026/03/18/china-openclaw-baidu-tencent-ai.html>
<https://fortune.com/2026/03/14/openclaw-china-ai-agent-boom-open-source-lobster-craze-minimax-qwen/>
<https://www.aitime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8118>
<https://biz.sbs.co.kr/article/20000299045>
<https://www.ichongqing.info/2026/03/17/chongqings-opc-boom-how-one-person-companies-are-shaping-the-digital-economy/>
<https://english.news.cn/20260310/7667474137ea4525844318d066902fc9/c.html>
<https://en.tmtpost.com/post/7919808>
<https://www.chinadaily.com.cn/a/202603/18/WS69ba1bc2a310d6866eb3e7a3.html>
https://insights.made-in-china.com/At-the-start-of-2026-OpenClaw-swept-across-the-global-tech-and-venture-capital-circles_IAbtFoKUaQiT.html
<https://restofworld.org/2026/china-ai-anxiety-openclaw-jobs-redundancy/>
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6-03-12/openclaw-frenzy-drives-china-s-agentic-ai-adoption-raises-security-concerns>
<https://www.scmp.com/tech/policy/article/3345986/chinese-local-governments-offer-openclaw-project-subsidies-security-questions-linger>
<https://globalsemiresearch.substack.com/p/in-depth-analysis-of-chinese-openclaw>
<https://rits.shanghai.nyu.edu/ai/shenzhen-longgang-backs-openclaw-with-millions-in-subsidies-for-one-person-ai-companies/>
<https://news.cctv.cn/2026/03/11/ARTIU9NPnXcPCDiU9cOfqTID260311.shtml>
<https://www.reuters.com/business/microsoft-taps-anthropic-copilot-cowork-push-ai-agents-2026-03-09/>
<https://www.microsoft.com/en-us/microsoft-365/blog/2026/03/09/powering-frontier-transformation-with-copilot-and-agents/>